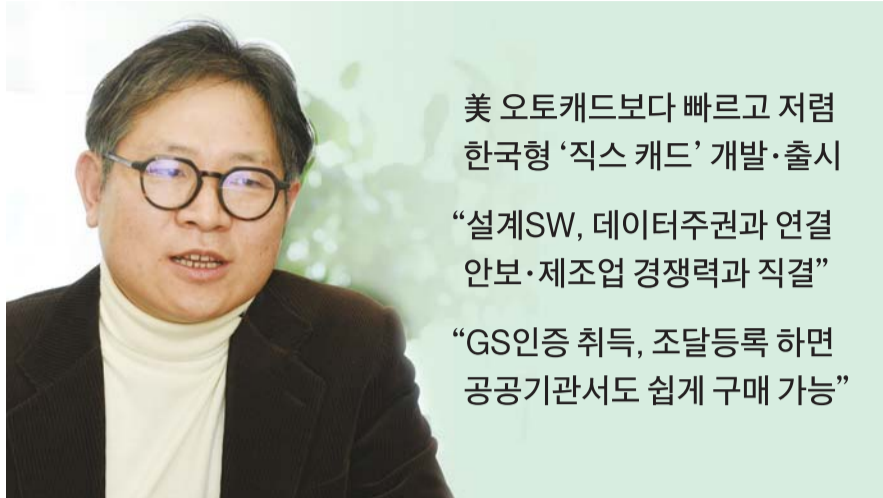


# “외산SW 독과점에… 빠르고 안정적인 ‘한국형 카드’ 개발”

##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 업 신 조 직스테크놀로지 대표



美 오토카드보다 빠르고 저렴 한국형 ‘직스 카드’ 개발·출시

“설계SW, 데이터주권과 연결 안보·제조업 경쟁력과 직결”

“GS인증 취득, 조달등록 하면 공공기관서도 쉽게 구매 가능”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산이 판치는 카드(CAD) 시장에서 ‘데이터 주권’을 내세우며 고군분투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이 있다.

CAD 프로그램의 절대강자인 미국 오토카드(AUTOCAD)와 비교해 성능은 오히려 더 빠르고 가격이 저렴한 ‘한국형 카드’인 직스(ZYX)카드를 출시한 직스테크놀로지가 그 주인공이다.

“ZYX”는 우리가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3개의 축(X, Y, Z)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겠다는 뜻을 사명과 제품 이름에 담았다.

“건축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외산소프트웨어(SW)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늘 답답했다. SW시장 강자인 미국의 경우 자국에선 77%, 글로벌에선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디지털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국도 50% 이상의 자

립화율을 달성했다. 하지만 한국은 국산 SW 사용률이 20% 초반에 불과하다. 그것도 아래한글 정도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기업을 지향하며 이노비즈(기술혁신) 인증을 받은 직스테크놀로지는 2007년 창업한 업신조 대표(사진)의 설명이다.

업 대표는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IBMGBS컨설턴트를 거쳐 현재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를 겸하고 있다.

건축, 토목, 반도체,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의료 등 설계가 필요한 모든 곳

에 쓰이는 카드 프로그램은 미국, 중국의 아성이 더욱 거세다. 한국에서만 90% 이상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 대표는 “지금과 같은 디지털전환기에 카드와 같은 설계SW는 산업생태계 주도권을 차지하는 데이터 주권하고도 연결된다”면서 “AI, 혼합현실, 디지털트윈과 같은 데이터 기반 기술은 SW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디지털 지배력은 국가안보, 제조업 경쟁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 대표가 임직원들과 의기투합해 한국형 카드를 개발하게 된 동기다.

마침 한국에서 철용성 같이 자리를 지켜왔던 오토카드가 2017년부터 영구 라이선스를 임대라이선스로 정책을 바꾸면서 시장에서 ‘대안 카드’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오토카드는 기존 고객들에게도 임대 라이선스를 유도했다. 구독경제를 할 경우 직원 1인 기준으로 월 2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을 SW 사용에 들여야하다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오토카드가 시장 지배력을 내세워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스카드를 본격 개발하기 시작해 완성이 나오기까지 3년여의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했다. 카드 프로그램이 수만개의 코드로 구성된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집합체인데다 고객의 여러 요구와 기능을 장착하다보니 적지 않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업 대표는 “제품 출시에 앞서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기존 카드보다 빠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웃음). 사용자환경(UI)도 뛰어나다. 특히 72메가의 대형 DWG 파일을 열었을 때 오토카드보다 7배 빠르다는 평가

결과도 얻었다”고 설명했다. 개발 단계부터 성능 향상과 안정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직스카드는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10년간 사용한다면 영구라이선스의 경우 미국산 카드에 비해 비용이 7분의 1 수준이다. 임대라이선스는 3분의 1 가격에 사용할 수 있다.

업 대표는 “범용카드솔루션인 직스카드는 건설산업의 설계, 시공, CM 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반도체 등 제조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면서 “지난해 GS인증을 취득해 조달등록이 끝나면 공공기관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직스카드는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 설계 솔루션을 탑재해 쉽고 빠른 설계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현재 AI기반의 설계자동화 솔루션과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플랫폼도 개발하고 있다”면서 “향후엔 사스(SaaS) 형태의 사용자 맞춤형 설계 SW를 개발해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법정 출연금 상향

### 중기부, 지원 관련법률 등 공포 디지털 격차해소 등 내용 담겨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 등의 법정 출연금 상향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됐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회사 등이 기보에 납부하는 법정출연금의 근거를 대통령령상 조항에서 법률상 조항으로 상향하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했다.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 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

통령령을 개정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 예정이다.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법령이 정하는 기업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보를 포함한 보증기관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기보는 정부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본재산을 조성해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보에 대한 은행 등의 출연비율 상향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연율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하게 됐다. /김승호 기자

##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정착에 노력”

### 중기중앙회, 호남 신년인사회

중소기업중앙회가 호남에서 2023년 첫 지역 신년인사회의 문을 열었다.

3일 호남을 시작으로 영남권(9일), 수도권(10일), 충청권(11일)에서 잇따라 신년인사회를 열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자체, 국회, 중소기업계 등 호남지역 각계 주요인사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호남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잘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기중앙회는 3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 호남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주 기업현장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호 기자

## SGC솔루션 ‘글라스락 퓨어 버터옐로우’ 첫 선

SGC솔루션이 글라스락 신제품으로 ‘글라스락 퓨어 버터옐로우’를 4일 CJ 온스타일에서 처음 선보이며 단독 할인 행사를 펼친다.

3일 SGC솔루션에 따르면 ‘글라스락 퓨어’ 라인은 세련된 컬러와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글라스락의 베스트셀러 라인업으로 소비자들

호하는 세련된 색감의 ‘버터옐로우’ 컬러를 적용했다.

‘글라스락 퓨어 버터옐로우’는 밀폐 용기 내부가 더 잘 보이는 투명한 캡을 적용해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뚜껑은 분리 가능해 세척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아이나비시스템즈 톰톰과 ‘디지털 콕핏’ 파트너십

팅크웨어의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지도(맵) 플랫폼 개발 자회사인 아이나비시스템즈가 유럽 1위의 맵 공급사이자 위치정보 기술 전문 기업인 톰톰(TomTom)과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 관련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3일 톰톰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통해 아이나비시스템즈는 톰톰 디지털 콕핏 파트너 시스템에서 서비스 공급업체(Service Provider), 앱 개발자(App Developer), 시스템 통합사(System Integrator) 역할을 수행하며 톰톰의 국내 완성차용 디지털 콕핏 서비스의 내비게이션 공급을 비롯해 관련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기영 “동거여성 시신 강가에 묻었다” 진술 번복…경찰 수색 중  
▲ 중국발 입국자 61명 확진…양성률 20% /사진 뉴스스

▲ 차 훔치고 경찰관 폭행까지… 제주 중학생 8명 검찰 송치  
▲ 극단적 선택 10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인정 “인과관계 성립”



▲ 광주시 ‘580만원 육아수당’ 사전 예고 없이 폐지  
▲ 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사진 뉴스스